

사십절의 숨겨진 역사 - 스물아홉 번째 수

에스겔 제10장

Jeff Pippenger

2026-08-31

에스겔서에는 놀랍고도 중요한 예언적 계보와 진리들이 많이 있다. 성전 안에 있는 선지자들에 대한 성경적 표상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에스겔은 바퀴 안의 바퀴를 식별하는 자이다. 화잇 자매에 따르면, 그 바퀴들은 늦은 비의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순서를 보여 주는 인간 활동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그 사건들은 선지자가 행동으로 나타낸 비유 속에서 그 자신이 예언의 일부가 되었을 때 표상되는데, 이를테면 에스겔이 예루살렘 포위를 묘사한 4장의 표상에서 그의 왼편으로 누웠다가 이어 오른편으로 눕는 경우와 같다. 또한 에스겔의 역사를 윤곽짓는 열세 개의 특정한 날짜들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 늦은 비의 기간에 대한 이정표들을 제공한다. 진리는 날짜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열일곱, 열아홉, 스물다섯, 일흔, 마흔, 삼백구십, 그리고 물론 서른과 같은 숫자들을 통해서도 전달된다. 에스겔서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수는 백오십이라는 수이다. 그러나 백오십이라는 수는 에스겔서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훈은 교훈에 더하여져—그 수는 그 안에 있다.

백오십이라는 수는 예언적으로 포위의 선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그 포위는 뚜렷한 예언적 선이다. 혹은 원한다면, 그 포위는 하나의 바퀴이다. 역사의 예언적 선은 언제나 알파와 오메가를 지니며, 그러므로 알파와 오메가의 특성은 그 선의 시작과 끝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 포위의 알파 사건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었고, 포위의 끝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표상된 그리스도의 신부의 죽음이었다.

또 나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니, 그 성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시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기록하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 행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시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21:2-9.

에스겔의 아내는 포위 공격이 시작될 때 죽었으며, 그 자리에서 그녀는 에스겔의 "눈의 기쁨"으로 지칭된다. 그리고 같은 장에 제시된 예루살렘의 멸망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눈의 기쁨"으로 지칭된다.

또 제구년 시월 십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보라, 내가 한 번 쳐서 네 눈의 기쁨을 네게서 빼앗으리니, 그러나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며 눈물을 흘리지도 말라. 조용히 탄식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애곡하지 말며, 네 머리에 관을 동이고 네 발에 신을 신고 네 입술을 가리지 말며 사람의 떡도 먹지 말라. 그리하여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며, 아침이 되매 내가 명령받은 대로 행하니,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네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더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희의 힘의 영화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이 아끼는 내 성소를 더럽히겠고, 또 너희가 남겨 둔 너희 아들과 너희 딸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너희는 내가 행한 것같이 행하되, 입술을 가리지 말며 사람들의 떡을 먹지 말라. 너희의 관은 너희 머리 위에 있고 너희의 신은 너희 발에 있을 것이니, 너희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오직 너희 죄악 가운데서 쇠잔하여 가며 서로를 향하여 탄식할 것이다.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징조가 되리니, 그가 행한 모든 것대로 너희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이를 때에 너희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또 인자야, 내가 그들에게서 그들의 힘과 그들의 영광의 기쁨과 그들의 눈의 기쁨과 그들의 마음에 두는 것, 곧 그들의 자녀들인 아들과 딸들을 빼앗는 그 날에, 그 날에 피하여 살아남은 자가 네게 나아와 네 귀로 듣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네 입이 그 피한 자에게 열릴 것이요, 네가 말하고 다시는 병어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그들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24:1, 15-27.

그 포위의 알파는 에스겔의 소원의 죽음이며, 오메가는 이스라엘의 소원의 죽음이다.

들으나 듣지 못함

장로나 백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에스겔의 말을 듣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경우는 다섯 차례가 있다. 에스겔 8:1에서는 유다의 장로들이 그의 앞에 앉아 있다. 에스겔 14:1에서는 장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앉는다. 에스겔 20:1에서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묻고자 하여 온다. 에스겔 37:18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민족의 자손이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겠느냐?" 제24장에서는 백성이 직접 묻는다. "네가 이렇게 행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다섯 경우 각각에서 장로나 백성은 라오디게아적 상태에 있다.

그가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참으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무디게 하고 그들의 눈을 감기라.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함이니라. 이사야 6:9, 10.

듣되 듣지 못하는 백성에 대한 다섯 가지 표상과, 보되 보지 못하는 백성에 대한 다섯 가지 표상은 이사야의 증언에서 보기도 듣기도 거부하는 자들의 다섯 단계와 일치한다.

그러나 여호와와 말씀은 그들에게 계명에 계명, 계명에 계명이며, 줄에 줄, 줄에 줄이며,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었으니, 이는 그들로 가서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울무에 걸리며, 사로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28:13.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울무에 걸리며, 사로잡히리라. 이사야 8:15.

표적들

에스겔 24장에서, 포위 공격과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기간—곧 그의 눈의 기쁨—은 이스라엘의 눈의 기쁨인 예루살렘의 죽음으로 끝난다. 일 년 반의 포위 기간은 알파와 오메가의 표징을 담고 있으며, 그 기간은 표징으로 시작하여 표징으로 끝난다. 에스겔 24장에서와 같이,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포위의 표징을 밝히신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많은 무리의 듣는 가운데서 선포되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홀로 계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가 감람산에 앉아 계신 그분께 나아왔다.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당신의 오심의 큰 날을 각각 따로 떼어 제자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이 두 사건에 대한 묘사를 함께 엮으셨다. 만일 그분께서 장차 일어날 사건들을 당신이 보시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밝혀 주셨더라면, 그들은 그 광경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을 향한 자비로 말미암아 그분은 이 두 큰 위기에 대한 묘사를 서로 섞으시고, 그 뜻을 제자들 스스로 연구하여 깨닫도록 남겨 두셨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언급하실 때에, 그 예언의 말씀은 그 사건을 넘어, 주께서 세상의 죄악을 벌하시려고 그 처소에서 일어나시며, 땅이 그 피를 드러내고 더 이상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덮지 아니할 그 날의 마지막 대화재에까지 미쳤다. 이 전체의 말씀은 제자들만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 가운데 살게 될 자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었다.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고, 유대 민족의 구원의 때가 이르렀다고 선포할 것이다. 이들은 많은 사람을 잘못 인도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취되었다. 그분의 죽음과 예루살렘 함락 사이에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고는 또한 세상의 이 시대에 사는 자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예루살렘 멸망에 앞서 행해졌던 바로 그 미혹들이 여러 시대를 통하여 행해져 왔으며, 다시 행해질 것이다.

“‘또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사람들은 패권을 두고 다투었다. 황제들이 살해되었다. 왕좌 바로 곁에 서 있다고 여겨지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모든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한 민족으로서의 유대 민족의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랍비들은 이러한 징조들을 볼 때, 그것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속박하고 있는 열방 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포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이러한 징조들이 메시아의 강림의 표징이라고 선언할 것이다. 속지 말라. 그것들은 그분의 심판의 시작이다. 백성은 스스로를 의지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고치도록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자신들의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의 표징이라고 제시하는 그 징조들은 그들의 멸망의 징조들이다.” 시대의 소망, 628.

주후 66년의 예루살렘 포위에는 로마가 그 군기를 성소 구내에 세우는 표징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께서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의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주후 70년의 멸망을 그분의 재림과 일치시키셨으며, 그분의 재림에는 또한 그와 관련된 한 표징이 있다.

“이윽고 우리의 눈은 동쪽으로 향하였다. 사람의 손의 반쯤만 한 작은 검은 구름이 나타났기 때문이니, 우리는 그것이 인자의 표징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 The Day Star, 1846.

주후 66년부터 70년까지의 역사의 시작과 끝에는 포위 공격의 시작과 그 성읍의 멸망에 연관된 한 표징이 담겨 있으며, 이는 기원전 587년과 기원전 586년에 “눈의 기쁨”의 죽음에 관한 알파와 오메가의 표징과 일치한다.

일 년 반에 걸친 포위의 역사는 마지막 날들을 위한 “징조”이다. 에스겔의 역사에 나타난 미련한 처녀들은, 서기 66년에 그 포위의 징조를 보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였던 지혜로운 처녀들의 역사 속에서 그 대응되는 실체를 발견한다. 일 년 반에 걸친 포위는 예배하는 두 부류를 드러내는 징조이다. 한 부류는 그 징조를 깨달을 것이나, 다른 한 부류는 이사야가 “많은 사람”으로 표상한 바와 같이 보지도 듣지도 못할 것이다.

많은 자와 적은 자

이에 왕이 사환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고 끌어내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13, 14.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니, 이는 부름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라. 마태복음 20:16.

보고 듣기

에스겔서에는 몸소 행하여 보인 비유가 다섯 가지 있으며, 또한 에스겔이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말한 경우도 다섯 번 있다. 이 두 증인은 ‘보기를’ 거부하고 ‘듣기를’ 거부하는 다섯 미련한 처녀를 밝혀 준다. 그들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예언의 말씀의 봉인을 떼실 때 더해지는 지식을 보기도 듣기도 거부한다.

세상은 보고 들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땅에 거하는 자들아, 그가 산들 위에 기를 세울 때에 너희는 보라. 그가 나팔을 불 때에 너희는 들으라. 이사야 18:3.

그 날에 귀먹은 자들이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맹인의 눈이 어둠과 흑암에서 벗어나 보게 되리라. 이사야 29:18.

내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은 지식이 없도다

내가 어느 때까지 기치를 보며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겠느냐? 이는 내 백성이 어리석어서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우둔한 자식들이요, 총명이 없도다.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예레미야 4:21, 22.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라. "어리석고 총명이 없는 백성아, 이제 이것을 들으라.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예레미야 5:20, 21.

반역하는 집안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가운데 거하고 있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며,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다. 에스겔 12:1, 2.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고하여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은 스스로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그들을 고치게 될까 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붐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13-17.

옛 길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들에 서서 보고, 옛 길들,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물어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며 이르기를,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예레미야 6:16, 17.

1840-1844년의 기별

"1840년부터 1844년까지 주어진 모든 기별은 지금 강력하게 전해져야 한다. 이는 자신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기별들은 모든 교회에 전해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Matthew 13:16, 17].” 1843년과 1844년에 보여진 것들을 본 눈들은 복이 있다.

“기별은 주어졌다. 그리고 그 기별을 반복하여 전하는 데 아무런 지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는 시대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으며 마지막 마무리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짧은 시간 안에 큰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따라 한 기별이 주어질 것이며, 그것은 힘찬 외침으로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다니엘은 자기의 분깃 가운데 서서 그의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원고 발표집』 21권, 437.

포위의 징조

에스겔서에는 그가 백성이 보기를 거부한 비유를 ‘행동으로 보여 준’ 경우가 다섯 번 있으며, 또한 듣기를 거부한 그 백성에게 그가 ‘말로 선포한’ 경우도 다섯 번 있다. 행동으로 보여 준 비유와 말로 전한 것이라는 두 증인은 다섯 미련한 처녀들에게 제시되었다. 4장에 나오는 행동 비유들 가운데 하나는 다가오는 멸망을 경고하는 포위의 “표징”을 나타낸다. 에스겔의 기별은 라오디게아에게 주는 기별이다.

라오디게아에게 주어진 “표징”은 ‘포위의 표징’이며, 마지막 날들의 포위는 여러 증인들에 의해 제시된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표징은 요나의 표징이었는데, 그는 고래 배 속에서의 사흘을 행동으로 보여 준 비유를 나타낸다.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며, 우리가 당신에게서 표적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이는 요나가 큰 물고기 배 속에 사흘 밤낮을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땅 속에 사흘 밤낮을 있으리라. 마태복음 12:38-40.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행동으로 나타낸 비유였다.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으나 살아 나왔으므로 동일한 진리를 나타낸다. 사자 굴 속의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의 풀무불 속의 세 히브리 청년들도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나타낸다. 이들 모두는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부활하는 십사만 사천을 예표한다.

구주의 생각은 이제 과거와 미래를 묵상하던 데서 다시 돌아왔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남겨진 인상과 자신들이 가진 빛에 따라 보고 들은 것을 설명하려 애쓰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것은 그분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고,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버지께서 친히 나타내신 표징이었다. 유대인들이 이 지극히 높은 하늘의 증언에서 돌이키려 하겠는가? 그들은 일찍이 구주께 “우리가 보고 믿게 무슨 표적을 보이시나이까?” 하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공생애 전 기간에 걸쳐 무수한 표적이 주어졌으나, 그들은 확신에 이르게 될까 두려워 자기들의 눈을 감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기적도 그들의 불신을 제거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욱 큰 악의를 품게 하였고,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셨으므로 더 이상의 표적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그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지지 않았고 여전히 믿기를 거절하였다.” 예언의 신, 제3권, 79.

나사로는 고래의 뱃속에 있었던 요나에 의해 연출된 부활의 표징이었다. 부활한 나사로와 관련된 아버지의 음성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나타내며, 이것은 물론 친히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의 본성이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은 십사만 사천의 기치이며, 나사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연합을 이루는 부활의 능력의 표징이다.

“나사로를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구주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안치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나사로를 일으킨 일은 그리스도의 최고의 기적이었으며,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21, 111.

나사로는 예루살렘으로의 승리의 입성을 이끌었으며, 그는 요나로 예시된 부활의 살아 있는 “표징”이었다.

“무덤에서 그의 몸이 썩음을 보았으나, 이제는 영화로운 장년의 힘을 기뻐하는 나사로가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이끌었다.” 『시대의 소망』, 572.

개선 입성은 열 처녀의 비유의 알파 성취였던 엑서터 천막집회와 일치하며, 따라서 요나와 나사로의 “표적”을 “보라, 신랑이 오신다!”라는 기별의 선포의 오메가이자 완전한 성취와 일치시킨다.

“나는 종종 열 처녀의 비유로 주의를 돌리게 되는데, 그중 다섯은 슬기로웠고 다섯은 어리석었다. 이 비유는 글자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또한 성취될 것이니, 이는 그것이 이 시대에 특별한 적용을 가지며, 셋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성취되어 왔고 또한 때의 마침까지 계속하여 현재진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Review and Herald, 1890년 8월 19일.

요나와 나사로, 그리고 사무엘 스노우가 엑서터 야영 집회에 늦게 도착한 것은 에스겔의 “포위의 표징”과 일치한다. 나사로는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도록 인도하였다.

“베이츠는 1844년 8월 엑서터(뉴햄프셔) 야영 집회에서, ‘참된 자정 외침’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의 중요한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마침 베이츠는 그날 아침 야영 집회의 예배를 위해 선택된 설교자였다. 그가 청중에게 신실할 것을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을 시험하고 계시고 그들이 지체의 때에 있으며, 그와 유사한 뜻을 차분히 확언하고 있을 때, 사무엘 S. 스노우가 말을 타고 야영장에 들어왔다. 자기 누이인 존 카우치 부인 곁에 자리를 잡은 스노우는, 그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거듭 밝혔다. 크게 감동한 카우치 부인은 일어나서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청중을 놀라게 하였다.” Leroy Froom,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volume 4, 549.

1521년 4월, 마르틴 루터는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보름스 제국의회로 갔으며, 그곳에서 교황의 전통과 관습을 거부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성경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성에 의하여 설득되지 않는 한 ...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 서 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다. 하나님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을 대적했던 것처럼, 교황권의 권세자들은 루터의 입성을 대적하였다. 그 후 루터는 자신의 이름을 바꾸었는데(이는 인침의 상징이다), 독일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하는 동안 숨겨졌다. 보름스 제국의회에서의 그의 증언은 한밤중의 부르짖음을 예표하였으며, 그것은 당시 교회-국가 권세자들로부터 사형 명령을 초래하였고, 이로써 일요일 법을 예표하였다. ‘웅커 예르크’라는 이름 아래 열 달 동안 은신한 후, 권세자들로부터의 위협은, 부패한 카를 5세가 직면한 두 가지 군사적 문제로 인해, 크게 달라졌다. 그 두 군사적 위협은 프랑스와 이슬람이었으며, 이는 오늘날 인류를 대면하고 있는 사회주의와 이슬람의 동일한 불경한 동맹을 대표한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모든 위대한 종교개혁이나 종교 운동에서 현저한 유사성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현재의 중요한 운동들은 과거의 그것들과 서로 상응하며, 이전 시대 교회의 경험은 우리 시대를 위하여 매우 귀중한 교훈을 지니고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343.

나사로가 이끈 나귀가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들였고, 말이 끄는 마차가 루터를 보름스 의회로 데려갔으며, 말이 스노우를 엑서터 야영 집회로 데려갔으니, 이로써 “Equus” 속(屬)에 속한 “Equidae” 과(科)의 두 구성원인 나귀와 말이 모두 한밤중 외침의 기별의 표징으로 확인된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의 딸아, 외쳐 부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스가랴 9:9.

한밤중의 외침 기별의 표징은 나귀 혹은 말의 도래인데, 이 둘은 모두 이슬람의 상징이다. 한밤중의 외침의 참된 기별을 위한 택함받은 기별자는,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것과 상응하게, 말을 타고 도착하였다. 마지막 시대의 “포위”는 내슈빌 시가 “불덩이들”에 의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엘렌 화잇의 지적이 성취됨으로써 특징지어진다.

어찌하여 그 포위가 내슈빌의 불덩이들에서 시작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서 이슬람이 나귀와 말로 상징되기 때문인가?

서머나

네로 황제는 주후 64년에 로마 성이 불탔을 때 서머나 교회의 시작을 표지한다. 그 날짜는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이르러 종결된, 250년 기간에 걸쳐 자행된 그리스도교 교회에 대한 박해의 시작을 표지한다. 짐승의 우상의 형성은, 곧 도래할 일요일 법에서 짐승의 표로 대표되는 오메가 이정표로 끝나는 한 기간을 도입하는 알파 이정표를 나타낸다. 그 기간은 “칙령들”로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독자가 머지않아 전개될 투쟁에 사용될 세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는 다만 과거 시대에 로마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수단들의 기록을 더듬어 보기만 하면 된다. 교황주의자들과 개신교도들이 연합하여 그들의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알고자 한다면, 로마가 안식일과 그 옹호자들을 향하여 나타낸 정신이 어떠하였는지를 보게 하라.

“세속 권력의 지지를 받는 왕의 칙령들, 보편 공의회들, 그리고 교회 규례들이 이교의 축제가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존귀한 위치에 이르게 한 단계들이었다. 일요일 준수를 강제한 최초의 공적 조치는 콘스탄티누스가 제정한 법률이었다. (서기 321년; 53쪽 부록 주를 보라.) 이 칙령은 도시 주민들이 ‘존엄한 태양의 날’에 휴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시골 사람들에게는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비록 실질적으로는 이교적 법령이었으나, 그것은 그가 명목상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후 황제에 의해 시행되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74.

서머나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로의 전환을 표시한 첫 번째 황실 칙령은 313년의 밀라노 칙령이었다. 그것은 321년의 첫 번째 일요일 법으로 이르게 한 첫걸음을 나타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일요일 법을 예표하며, 두 개의 예언적 증언은 그 멸망에 앞선 한 포위를 확인한다. 기원전 587년 바벨론의 세 번째 포위와 주후 70년 로마의 두 번째 포위로 표상된 그 두 포위는, 일요일 법의 이정표에 선행하는 이정표가 곧 예언적 포위임을 밝혀 준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קים을 대적하여 포위하였고, 이어 여호야킨을, 마지막으로 시드기야를 포위하였다. 케스티우스는 주후 66년에 포위하였으며, 예수께서 교회에 주신 표징을 성취하였는데, 이는 기원전 587년의 세 번째 포위가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라는 표징을 지녔던 것과 같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앞서는 이정표는 포위이며, 또한 그것은 “표징”이다. 주후 321년의 일요일 법령에 앞선 이정표는 밀라노 칙령이었으며, 그곳에서 정죄받을 것이 없는 교회(서머나)로부터 타협한 교회의 상징인 버가모로의 전이가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밀라노 칙령은 예언적 포위의 시작이며, 또한 하나의 표징이다. 그것은 또한 십사만 사천의 라오디게아 운동이 십사만 사천의 빌라델비아 운동으로 전환되는 지점을 표시한다.

빌라델비아와 서머나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가운데 책망이 전혀 없는 유일한 두 교회를 나타낸다. 이 사실은 다시금 그 전환을 전투하는 교회에서 승리한 교회로의 전환으로 규정한다. 그 전환은 밀라노 칙령과 일치하며, 그곳에서 십사만 사천의 마지막 시대 운동은 일곱 가운데 속한 그 여덟째 교회가 된다. 또한 빌라델비아와 서머나는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나 실상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과 맞서 싸우는 유일한 두 교회이기도 하다.

313의 그 이정표는 또한 1844년 8월 12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엑서터 야영회와도 일치한다. 그 야영회가 끝났을 때, 그 기별은 1844년 10월 22일 문이 닫힐 때까지 미국 동부 해안 전역을 조수의 큰 물결처럼 휩쓸고 지나갔다.

“그 운동은 밀려드는 해일과 같이 온 땅을 휩쓸었다. 성읍에서 성읍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그리고 외딴 시골 지역에까지 그것은 퍼져 나갔으며, 마침내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각성되기에 이르렀다. 광신은 이 선포 앞에서 마치 떠오르는 태양 앞의 이른 서리처럼 사라졌다.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의심과 당혹이 제거되는 것을 보았고, 소망과 용기가 그들의 마음을 고무하였다. 그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배하는 감화 없이 인간적 흥분만 있을 때 언제나 드러나는 그러한 극단들로부터 자유로웠다. 그것은 옛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책망의 기별에 뒤이어 나타나곤 하던 겸비와 주께로 돌아옴의 시기들과 그 성격이 유사하였다. 그것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특징짓는 표지들을 지니고 있었다. 황홀경의 기쁨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깊은 마음의 살핍과 죄의 고백과 세상을 버림이 있었다. 주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고뇌하는 영혼들의 부담이었다. 끈질긴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거리낌 없는 헌신이 있었다.” 『각 시대의 대쟁투』, 400, 401.

1844년 10월 22일에 닫힌 문은 곧 도래할 일요일 법을 예표하며, 10월 22일의 닫힌 문에 선행한 이정표는 엑서터 야영 집회였다. 그러므로 엑서터 야영 집회는 밀라노 칙령과 일치한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기도 일치한다.

“한밤중의 외침은 성경적 증거가 분명하고 결정적이었음에도, 논증에 의해 전해진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그것과 함께 영혼을 움직이는 강권하는 능력이 수반되었다. 거기에는 의심도, 의문도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개선 입성하실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온 땅 각처에서 모여든 백성은 감람산으로 몰려들었고, 예수를 호위하던 무리에 합류하면서 그 시간의 감동을 붙잡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21:9.]라는 외침을 더욱 크게 하는 데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림신자들의 집회에 몰려든 불신자들—어떤 이들은 호기심으로, 어떤 이들은 단지 조롱하려고—도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기별에 수반되는 확신시키는 능력을 느꼈다.” 『예언의 신』 제4권, 250.

밀라노 칙령은 주전 587년의 느부갓네살과 서기 66년의 케스티우스에 의해 예표된 예언적 포위를 표시한다. 이 두 포위는 각각 주전 586년과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어졌다. 케스티우스의 포위는 끝났고, 삼 년 반 후에 티투스 아래에서 그 포위가 재개되었으며, 이로써 알파인 로마 통치자로 시작하여 오메가 통치자로 끝나는 예언적 기간이 제시되었다. 그 삼 년 반은 교황권에 의한 예루살렘의 짓밟힘을 나타내며, 또한 교황권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음을 입고 그녀가 다시 삼 년 반의 상징적 기간 동안 통치하게 될, 곧 닥쳐올 일요일 법을 나타낸다.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제외하고 그것을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1:2

538년에, 그리고 이어서 다가오는 일요일 법령 때에 예루살렘을 짓밟는 일이 시작된다. 이 두 일요일 법령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최초의 일요일 법령을 제정한 321년으로 표상되었다. 538년에 교황권은 케스티우스에서 티투스에 이르는 역사로 표상된 바와 같이, 삼 년 반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짓밟고) 다닐 권세를 부여받았다. 538년에 교황권은 제3차 오를레앙 공의회에서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였다. 머지않아 올 일요일 법령은 교황권이 다시 성전을 짓밟을(박해할) 권세를 부여받는 때를 드러낸다.

313은 321년에 이르게 된 첫 번째 일요일 법령의 근원이 된 최초의 칙령을 지목한다. 그 후 330년에 제국은 예언적으로 동과 서로 분할되었으며, 이로써 미국에서 알파 일요일

법령과 함께 시작된 박해와 짓밟음의 기간, 곧 상징적 “마흔두” 달에 이르는 교황권 박해의 두 번째 기간의 오메가적 결말이 표시되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마에나 손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는 그의 분노의 잔에 섞음 없이 부어진 것이라. 또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들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곧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요한계시록 14:9-12.

평원

‘밀라노’의 라틴어 의미는 평야의 한가운데라는 뜻이다. 동과 서의 한가운데에서, 313년에 서방의 콘스탄티누스는 동방의 리키니우스와 동맹을 모색하였다. 그 칙령은 동과 서를 함께 결합시키려는 시도를 나타내었으며, 그 칙령은 조약 결혼을 통하여 비준되었는데, 곧 콘스탄티누스의 이복누이 콘스탄티아가 리키니우스와 결혼한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서 11장에서 북방의 셀레우코스 왕조와 남방의 프톨레마이오스 사이의 첫 번째 조약 결혼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결혼 역시 ‘동은 동이요, 서는 서이니, 이 둘은 결코 만나지 못하리라’는 오래된 격언이 성취됨으로써 실패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330’년은 다니엘 11장 24절, 27절, 29절에 직접 제시되어 있다. 이는 313년부터 330년까지의 17년을 다니엘 11장의 예언적 계보 안으로 가져오며, 예언적 필연성에 따라 313년에 있었던 동서의 그 조약 결혼이 같은 장에 나오는 첫 번째 조약 결혼과 평행을 이룬다는 것을 밝혀 준다.

“다니엘 11장에 있는 예언은 거의 완전한 성취에 이르렀다. 이 예언의 성취로 일어났던 역사의 많은 부분이 반복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no. 13, p. 394.

기원전 261년부터 246년까지 통치한 안티오쿠스 2세 테오스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2세 필라델포스의 딸 베레니케를 맞이하기 위하여 첫 번째 아내 라오디케 1세를 물리쳤다. 이 결혼은 기원전 252년에 제2차 시리아 전쟁을 종결시킨 평화 협정의 일부였다. 그 후 콘스탄티누스가 324년에 리키니우스를 패배시켰을 때 그 혼인이 종결되었는데, 이는 기원전 246년에 첫 번째 아내 라오디케가 안티오쿠스를 독살하였을 때 안티오쿠스와 베레니케의 혼인이 끝난 것과 같았다. 제2차 시리아 전쟁의 종결을 표시하였던 그 결혼과, 안티오쿠스의 살해,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베레니케와 그녀의 자녀 및 이집트 수행원들의 살해는 제3차 시리아 전쟁의 시작을 표시하였다. 313년의 조약 결혼은 서머나 교회로 표상되는 박해의 시대를 끝내고 버가모 교회로 표상되는 타협의 시대를 시작하였다.

셀레우코스 왕조 역사의 시작 부분에 있었던 그 결혼은, 대왕 안티오쿠스가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 1세를 프톨레마이오스 5세 에피파네스에게 준 셀레우코스 제국 말기의 조약 결혼을 예표하였다. 그 결혼은 기원전 193년에 라피아에서 이루어졌으나, 북방 왕과 남방 왕 사이의 첫 번째 조약 결혼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동맹도 곧 끝나고 말았다. 셀레우코스 제국의 알파와 오메가에 해당하는 이 조약 결혼들은, 후에 다니엘 11장의

예언 역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자기 누이 옥타비아 미노르를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에게 준 기원전 40년의 조약 결혼을 예표한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기원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되면서 촉발된 로마의 동방과 서방 지역에 대한 권력 투쟁 가운데 있었다. 브룬디시움 조약은 기원전 40년 그 결혼과 더불어 체결되었고, 그로부터 8년 뒤인 기원전 32년에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와 정식으로 이혼하여, 기원전 31년 악티움 전투를 촉발시켰으며, 그곳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바로 마지막 클레오파트라)가 함께 종말을 맞았다.

셀레우코스 제국의 오메가 혼인 조약은 마지막 클레오파트라를 예표한 최초의 클레오파트라를 들여왔으며, 그녀의 혈통은 기원전 40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예언적 알파 혼인 조약에 이르는 연결고리를 형성하였다. 이 세 조약 결혼은 밀라노 칙령의 조약 결혼을 예표한다. 밀라노 칙령은 예언적 포위의 시작을 표시하며, 그것은 예언적 표징을 나타내고, 의로운 교회가 불의한 교회로 전환되는 시점을 표시하므로, 일곱 중 여덟째 존재의 수수께끼와 일치한다. 그것은 전쟁을 끝내는 조약 결혼을 표시하며, 그 조약 결혼의 이혼에 이르기까지 그러하다가, 그로써 전쟁의 시작을 표시하게 된다. 두 로마의 결혼에서 그 이혼은 제국의 통합을 촉발한다. 또한 313년은 한밤중 외침의 기별 선포가 시작되어 10월 22일의 닫힌 문으로 이르게 되는 엑서터 야영 집회를 표시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러한 진리들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다.